

# 충북 지역경제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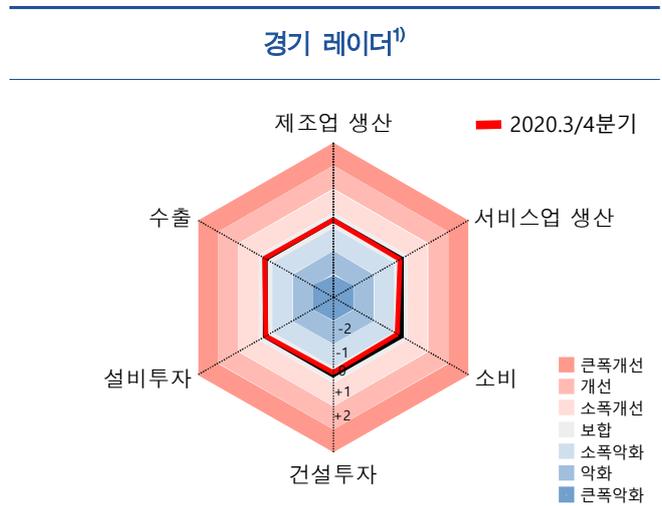
2020.9

본 자료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2020년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최근의 충북지역 경제 상황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추후 발표되는 공식통계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황 : 보합

3/4분기 중 충북 경기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보합 수준을 나타냈으며 수요 측면에서도 소비 및 투자가 전분기 수준에 그친 가운데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다.

7~8월 중 취업자수는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7~8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을 중심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3/4분기 중 기업자금사정은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하여 평가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

## 부문별 경기판단<sup>1)</sup>

		2020년 3/4분기	향후 전망
<b>총 합 판 단</b>		◇ 보합	◇ 보합
생 산	제 조 업	◇ 보합	◇ 보합
	서 비 스 업	◇ 보합	▼ 소폭 감소
수 요	소 비	◇ 보합	▲ 소폭 증가
	설 비 투 자	◇ 보합	◇ 보합
	건 설 투 자	◇ 보합	◇ 보합
	수 출	◇ 보합	◇ 보합

주 : 1) 전기대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 ▼, ▼▼는 각각 증가, 소폭 증가, 보합, 소폭 감소, 감소를 나타냄

■ ■ ■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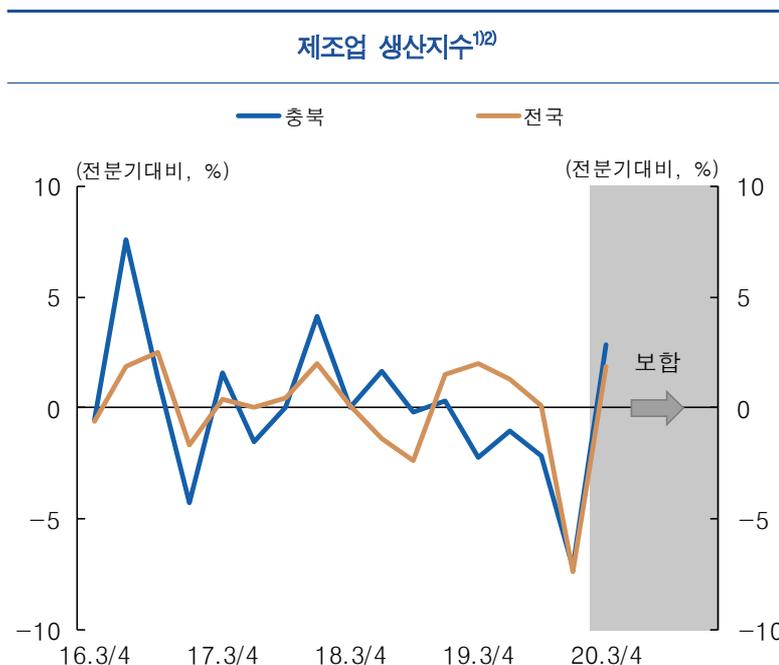
(제조업 생산 포함)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 의약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비금속광물은 감소하였으며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등은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전기장비는 전기차용 2차전지에 대한 유럽지역 수요가 확대<sup>1)</sup>되면서, 의약품은 코로나19 관련 제품(항체 의약품, 진단키트 등)의 국내외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sup>2)</sup> 생산이 증가하였다. 반면 전자부품은 대형 TV 관련 부품 수요가 늘었으나 낸드플래시 수요가 줄어들면서<sup>3)</sup>, 비금속광물은 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 등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각각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화학제품은 생활용품 수요가 위생용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화장품 수요가 백화점, 면세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 위축되면서 전체적인 생산은 포함 수준을 유지하였다. 고무·플라스틱은 바이러스 차단용 투명 가림막 등의 국내외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등의 실물경기 회복 지연으로 건축재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면서 포함 수준에 그쳤다. 또한 음식료품, 섬유 생산도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생산 : 포함)

- 증가 업종
  - 전기장비, 의약품 등
- 감소 업종
  - 전자부품, 비금속광물 등
- 포함 업종
  -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등



주 :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그래프는 7월 실적치(잠정)  
 자료 : 통계청

- 1) 7월 중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5.3만대로, 월 기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였다(슈밋마티아스).
- 2) 충북의 의약품 생산은 1~6월 중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데 이어 7월 중에는 22.3% 늘어나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리포트]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충북의 의약품 산업」을 참조하기 바란다.
- 3) 3/4분기 중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은 고용량 낸드를 채용한 스마트폰, 게임 콘솔 등의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서버 및 PC 제조기업이 낸드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데다 중국 YMTC의 3D 낸드 생산 증가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공급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D램 익스체인지).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기장비, 의약품 등은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섬유는 고품질 원사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자부품은 낸드플래시의 공급우위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타 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음식료품은 외식업의 부진으로 주류시장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비금속광물은 시멘트 출하량이 줄면서 각각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은 생산이 전분기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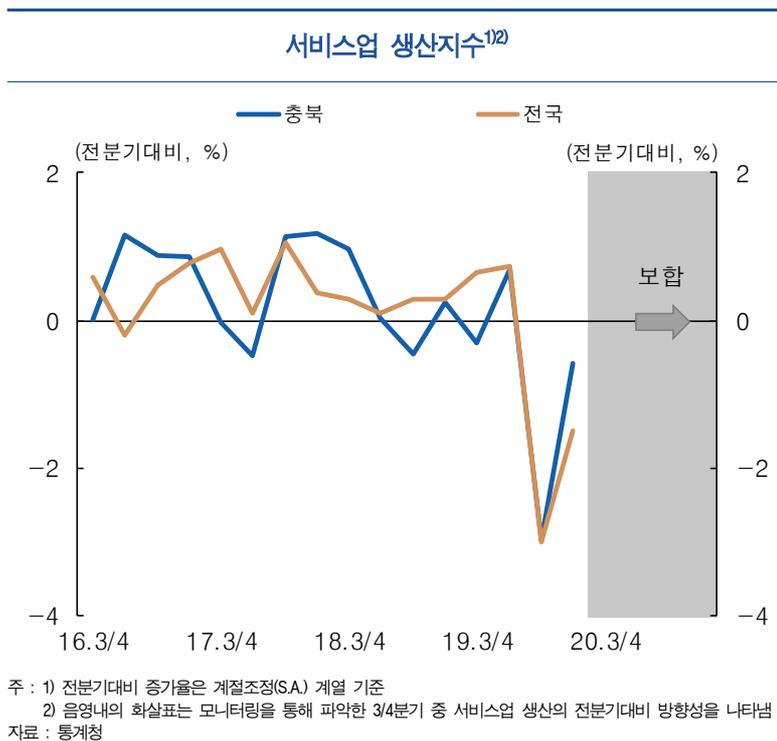
(전망 : 보합)

**(서비스업 생산 보합)**

3/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수업은 항공 여객과 운송<sup>4)</sup>이 증가하고 육상 운송도 기업화물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반면 외식업과 숙박·관광업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감소하였으며 사업서비스업은 건축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한편 도소매업은 개별소비세 인하폭 축소<sup>5)</sup>, 온라인쇼핑 선호 등으로 자동차판매점 및 대형할인점 매출이 둔화되었으나 백화점 매출이 고가제품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비스업 생산 : 보합)

- 증가 업종
  - 운수업 등
- 감소 업종
  - 외식업, 숙박관광업, 사업 서비스업 등
- 보합 업종
  - 도소매업 등



4) 7월 중 청주공항의 항공기 운항편수, 여객수, 운송 화물은 각각 1,195편, 19.4만명, 986.9ton으로 2/4분기(969편, 13.0만명, 611.1ton 기간 중 월평균)에 비해 증가하였다(한국공항공사).  
 5)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5% → 1.5%)하였다가 7월부터 30%로 인하폭(5% → 3.5%)을 축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숙박·관광업 및 도소매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각종 가을 행사가 취소<sup>6)</sup>되면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다중시설 이용 기피 현상도 지속되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은 화물운송의 증가세가 이어지겠지만 항공여객에 대한 수요 위축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서비스도 부동산경기 둔화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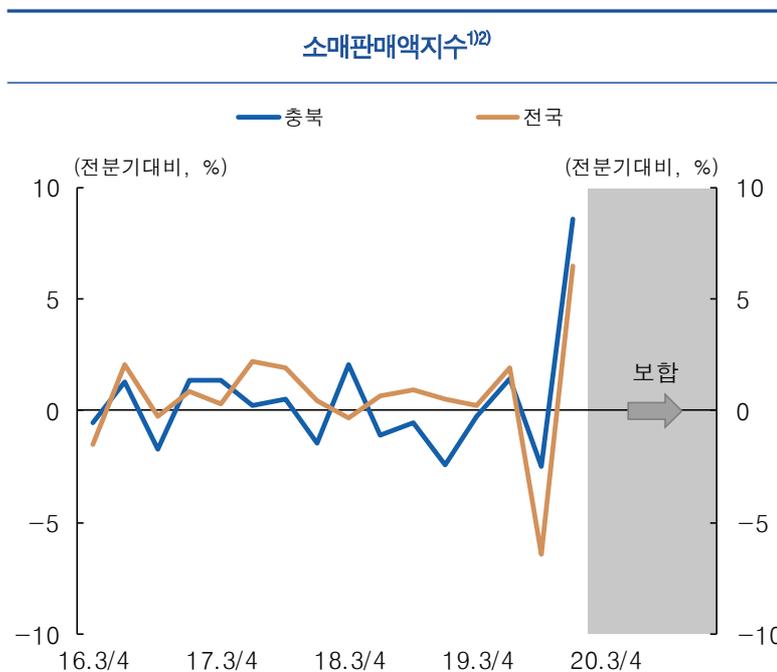
■ ■ ■ 수요

(소비 포함)

3/4분기 중 소비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구재는 개별소비세 인하폭 축소 및 집중호우<sup>7)</sup>와 낮은 기온<sup>8)</sup> 영향 등으로 자동차<sup>9)</sup>, 냉방기전 등의 판매가 줄어든 반면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확대 등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비내구재도 마스크,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준내구재는 외출 자제 분위기 등으로 의류·잡화 및 레저용품 판매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소비)

- 2020년 3/4분기 중 : 포함
- 전망 : 소폭 증가



주 :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sup>10)</sup> 등으로 소비 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 단양온달문화축제(10월),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10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10월), 국화옆에서 가을음악회(10월), 증평인삼골축제(10월), 생거진천문화축제(10월), 소백산 겨울축제(12월) 등의 자치단체 공식 축제 및 행사가 취소되었다.  
 7) 7월말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주, 제천, 음성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정부, 8.7일).  
 8) 충북지역(청주, 충주, 제천, 보은, 추풍령)의 장마기간 중(7.20일~8.10일) 평균기온은 23.0℃로 전년동기대비 약 4.2℃ 낮았다.  
 9) 7월 중 충북지역 자동차 신규등록대수(기간 중 월평균)는 4,283대로 2/4분기(4,712대)에 비해 감소하였다.  
 10) 정부는 소득 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별돌봄쿠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실업자 구직급여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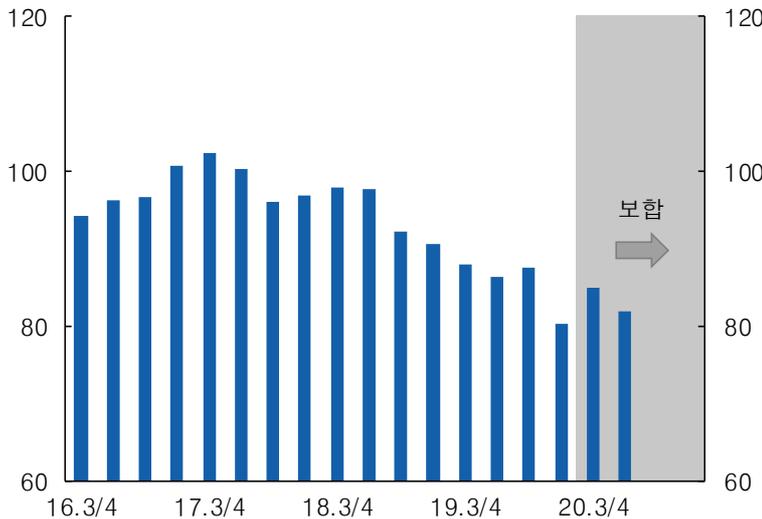
**(설비투자 포함)**

3/4분기 중 설비투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기업들이 투자 활동에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함에 따라 2/4분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은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전환 투자가, 의약품 제조업은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신규 투자<sup>11)</sup>가 진행되었다. 반면 화학제품 제조업은 신규 생산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서 전분기보다 투자가 감소하였다. 한편 비금속광물 제조업은 유지·보수 위주의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비투자)

- 2020년 3/4분기중 : 포함
- 전망 : 포함

설비투자실행BSI<sup>1)</sup>



주 :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신규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은 신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가 개시될 예정이며,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 투자<sup>12)</sup>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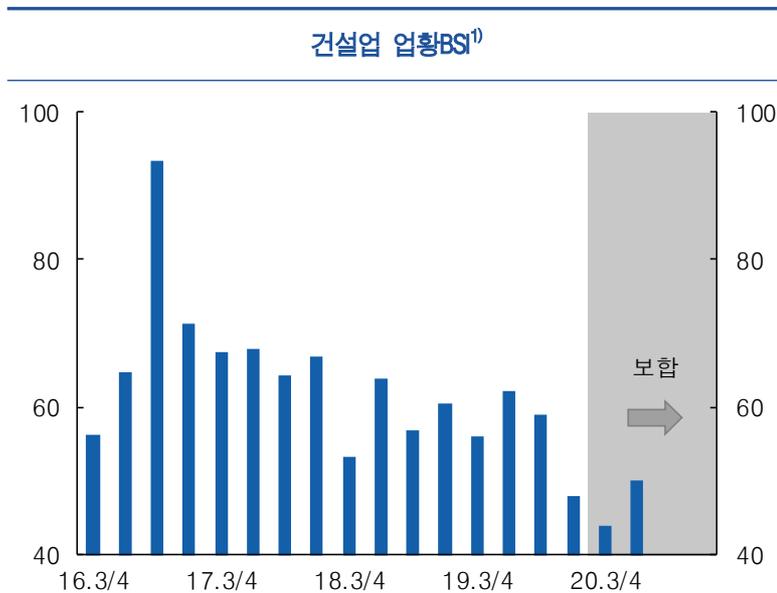
**(건설투자 포함)**

3/4분기 중 건설투자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건설은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세가 지속<sup>13)</sup>되는 가운데 건축착공면적도 주거용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sup>14)</sup>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토목건설은 지자체의 SOC 관련 예산집행<sup>15)</sup>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sup>16)</sup> 등으로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건설투자)

- 2020년 3/4분기중 : 포함
- 전망 : 포함

11) 셀트리온제약 청주공장, 종근당바이오 오송공장 등은 각각 2020년 12월, 2021년까지 총 582억원, 457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12) LG하우시스 청주공장은 1,194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PF 단열재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13) 충북의 미분양 주택수(기간중 월평균)는 2019년 4/4분기 2,155호, 2020년 1/4분기 1,159호, 2/4분기 546호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4) 7월 중 충북의 건축착공면적은 주거용(+403.2%)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07.2% 증가하였다.  
 15) 7~8월 중 충북지역 지자체의 SOC 관련 예산의 월평균 집행액은 727.2억원으로 2/4분기(1,851.6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16) 상반기 중 충청북도 신속 집행대상 예산액(3조 9,318억원)의 집행률은 78.5%로 당초 목표(65%)를 크게 상회하였다.



주 :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건설투자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건설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물량 축소<sup>17)</sup>, 정부의 부동산 정책<sup>18)</sup> 등으로 부진하겠으나 토목건설이 정부의 뉴딜사업 추진<sup>19)</sup>, 수해복구공사<sup>20)</sup>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 보합)

3/4분기 중 수출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약품(의료용 물질 포함)은 코로나19 관련 항체약품 및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sup>21)</sup>. 또한 전기장비도 유럽 주요국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sup>22)</sup>로 2차전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고무·플라스틱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부 제품(칸막이용)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건축재 등의 전반적인 수요가 부진하면서 감소하였다. 한편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수출은 보합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 2020년 3/4분기중 : 보합
- 전망 : 보합

17) 4/4분기 중 충북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1,558호로 3/4분기(3,054호)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부동산114).

18)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발표로 오창, 오송 등 청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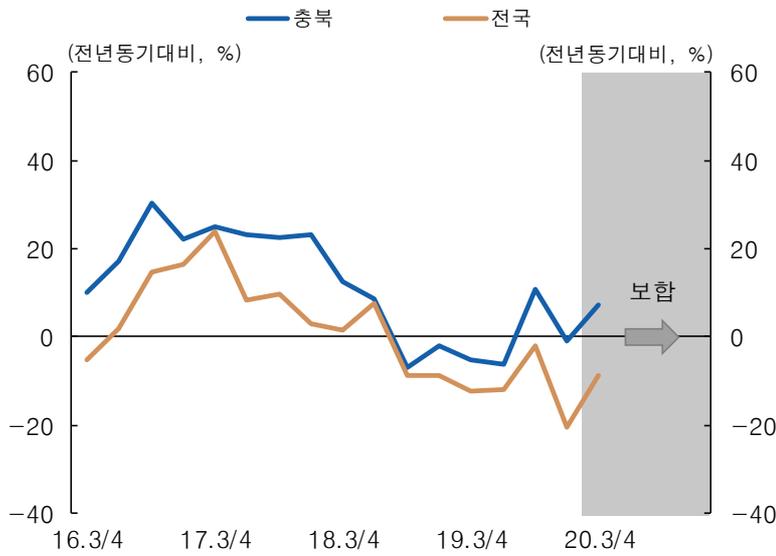
19) 충청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충북 관련 예산 1,199억원)과 함께 2,071억원을 투입하여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 혁신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7.20일).

20)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의 재산피해는 총 2,503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수해지역 시설물 등 피해복구에 총 5,0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충청북도).

21) 1~7월 중 충북의 의약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2.1% 증가하였다.

22) 독일은 6월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2배(3천유로 → 6천유로)로 확대하고 부가세를 3% 인하하였으며 프랑스는 5월부터 정부 보조금 인상(6천유로 → 7천유로) 및 중고차 교환프로그램의 전기차 차등 지원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환시 보조금(최대 6천파운드)을 지급하고 있다.

수출<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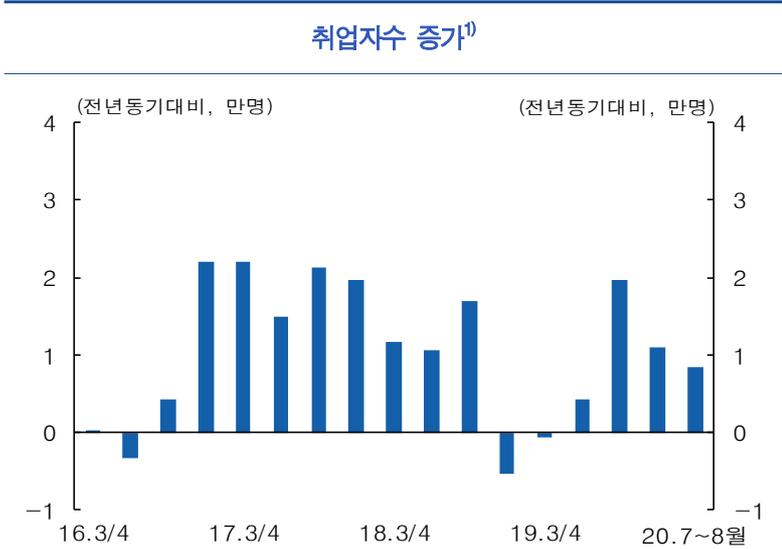
주 :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선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잠정)의 평균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에도 수출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장비는 유럽에서의 2차전지 수요 지속과 북미 등에서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약품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품의 견조한 수요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자부품은 공급우위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고무·플라스틱은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

7~8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9만명 늘어나 2/4분기(+1.1만명)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3만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0.8만명), 전기·운수·통신·금융(+0.7만명)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0.9만명)은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1.4만명)<sup>23)</sup>가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0.6만명)<sup>24)</sup>는 감소하였다.

(고용)  
 ■ 취업자수 : 증가폭 소폭 축소



주 :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 전환)

7~8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6% 올라 2/4분기(-0.1%)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상품물가(-0.8% → +0.4%)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공업제품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장기간 장마에 따른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가격이 크게 올라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서비스물가(+0.6% → +0.8%)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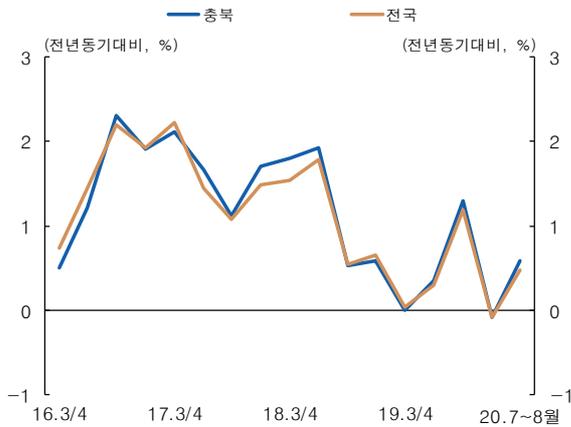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7~8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0.30% 올라 2/4분기(+0.59%)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반면 전세가격은 0.32% 올라 2/4분기(+0.22%)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청주의 경우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충주는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반면 제천과 음성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한편 주택전세가격은 청주, 충주, 음성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 : 상승폭 축소)  
 (주택전세가격 :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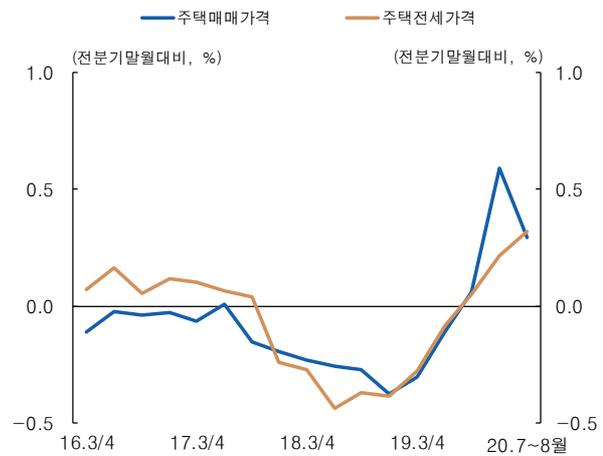
23)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1.3만명)와 임시근로자(+0.8만명)는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0.7만명)는 감소하였다.  
 24)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0.2만명)는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0.7만명)는 감소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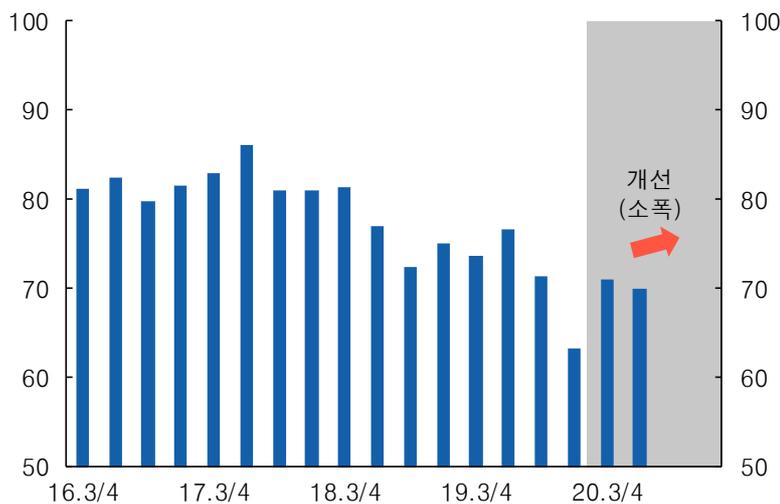
주 :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 한국감정원

■ ■ ■ 기업자금사정

3/4분기 중 기업자금사정은 전분기의 큰 폭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은 음식료품, 전자부품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폭 개선되었으나 금속제품 등에서는 악화되었다. 비제조업도 운수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자금사정 : 소폭 개선)

기업자금사정BSI<sup>1)</sup>



주 :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기업자금사정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 한국은행

현장리포트

###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충북의 의약품 산업

충북본부 조형진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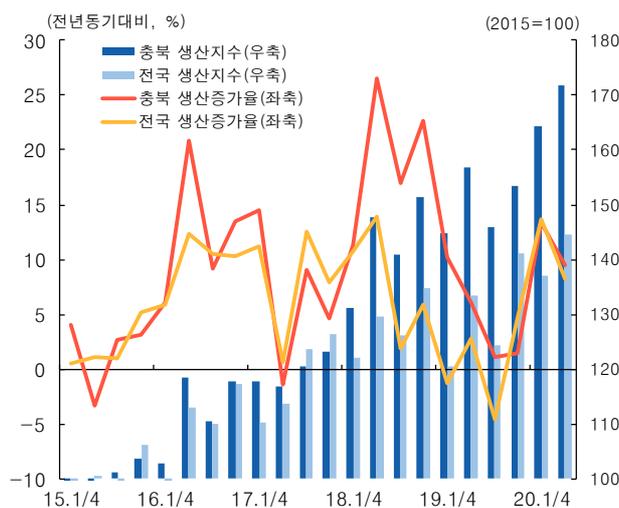
충북지역 의약품은 지난해 내수 둔화 및 수입품 점유율 확대 등으로 다소 부진<sup>25)</sup>한 모습을 보였으나 금년 들어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충북지역 의약품 생산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sup>26)</sup>(Pandemic)되면서 코로나19 관련 항체의약품(체외 진단시약 포함) 및 진단키트 등을 중심으로 금년 1/4분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3.4%, 2/4분기 중에도 9.5% 증가하는 등 1~6월 중 11.4% 늘어났다.

충북지역의 의약품 수출 역시 코로나19가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크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1~7월 중 실적이 318.8백만달러(전년동기대비 292.1% 증가)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 (81.3백만달러, 17.4%)을 크게 상회하였다.

주요 품목별<sup>27)</sup>로 보면, 코로나 19 관련 항체의약품 및 진단키트의 수출물량(금액기준)이 전년에 비해 10 배 가량 증가하면서 의약품 수출 증가세 확대를 견인하였다. 한편 손 소독제, 기침 및 감기약 등의 소매의약품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치과용 의약품 및 외과용 봉합제 등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국, 미국 등의 수요가 위축<sup>28)</sup>되면서 금년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의약품 생산



자료 : 통계청

충북지역 의약품 수출<sup>1)</sup>

(기간중 증감액, 백만달러, %)

	2019		2020			
	1~7월	연중	1/4	2/4	7월	1~7월
의약품	81.3 (17.4)	149.6 (17.5)	37.4 (11.7)	187.6 (421.6)	93.8 (690.8)	318.8 (292.1)
항체 의약품	20.8 (-5.2)	39.6 (-0.1)	7.7 (0.9)	118.9 (1,142.6)	72.4 (1,886.5)	199.0 (856.3)
진단 키트	6.5 (137.8)	14.5 (89.0)	9.8 (216.9)	40.4 (1,424.4)	10.4 (1,217.3)	60.6 (827.0)
소매용 의약품	20.7 (17.4)	38.7 (22.6)	9.0 (9.8)	16.1 (72.6)	6.0 (91.4)	31.1 (50.5)
치과용 의약품	23.6 (30.6)	41.2 (25.7)	7.1 (-32.7)	6.4 (-35.6)	2.1 (-33.1)	15.6 (-34.0)

25) 2019년 충북 의약품 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4분기 10.2% → 2/4분기 6.2% → 3/4분기 1.1% → 4/4분기 1.5%이다.  
 26) 8.31일 현재 국내 확진자(사망자)는 19,947명(324명)이며, 미국 599.3만명(18.3만명), 브라질 386.2만명(12.0만명), 인도 354.2만명(6.3만명), 러시아 99.0만명(1.7만명), 페루 63.9만명(2.8만명) 등 전세계적으로는 2,509.1만명(84.3만명)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7) 1~7월 중 충북지역의 의약품 수출에서 개별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항체의약품 62.4%, 진단키트 19.0%, 소매용 의약품 9.8%, 치과용 의약품 및 외과용 봉합제 3.3%이다.  
 28) 1~7월 중 충북지역의 치과용 의약품 및 외과용 봉합제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15.5%, 스위스 7.2%, 미국 6.7% 등의 순이며,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각각 -34.2%, +37.9%, -22.7%이다.

향후 충청지역의 의약품 생산 및 수출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 전까지 관련 제품의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역내 주력 의약품 중 하나인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시장 확대<sup>29)</sup>도 기대되면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청지역 주요 바이오 및 의약품 업체는 코로나19 종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치료제 및 백신, 진단키트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셀트리온 및 녹십자, 대웅제약 등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sup>30)</sup>된 가운데 항체치료제 및 혈장치료제, 약물재창출 등 다양한 종류<sup>31)</sup>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에 있으며 메디톡스 등은 백신, 수젠텍 등은 신속진단키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 지난 7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으로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글로벌 임상<sup>32)</sup> 1상을 승인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1상 승인을 받고 시험에 돌입하였다. 녹십자의 혈장치료제인 GC5131도 8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2상<sup>33)</sup>을 승인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메디톡스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모더나(미국), 화이자(미국),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시노백(중국) 등이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연내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2차 세계적 대유행(Pandemic) 및 장기·상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등의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충청지역 의약품 산업도 지금보다 양적·질적 역량이 크게 성장하면서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지역 주요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진단키트 개발 현황**

	업체	내용
치 료 제	셀트리온 (청주)	질병관리본부와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임상 1상 시험 진행(항체치료제)
	녹십자 (청주)	충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세포가 NK세포치료제에 의해 사멸되는 효과를 확인하였고 임상 2상 진행(혈장치료제)
	대웅제약 (청주)	DWRX2003 서방형 주사제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2상 진행(약물재창출)
	엔지켐 생명과학 (제천)	신약물질인 EC-18이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아 충북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에서 임상 2상 진행(약물재창출)
	일양약품 (음성)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백혈형 치료제 슈펙트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진행(약물재창출)
백신	메디톡스 (청주)	호주의 백신개발기업인 Vaxine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중에 있으며 임상 2상 진행(백신)
진단 키트	수젠텍 (청주)	식약처로부터 항원신속진단키트의 수출 허가를 받았고 미국 아벨리노랩과 함께 코로나19 중화항체 검사키트의 미국 FDA 승인을 추진(진단키트)

자료: 각 사

29) 국제의약품산업 리서치 기관인 Evaluate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금년 118억 달러에서 연평균 24.7% 성장하여 2025년에는 35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30)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5차 회의」에서 치료제 부문(셀트리온, 녹십자, 대웅제약, 신풍제약)과 백신 부문(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임상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8월).

31) '항체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잘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한 후, 이를 세포 배양 방식으로 만든 의약품이며,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혈액의 액체성분) 속에 포함된 다양한 항체를 추출해 만든 의약품이다. '약물재창출'은 기존에 사용 중인 의약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여 이를 변형·보완하여 만든 의약품이다.

32) 임상1상은 건강한 사람(20~80명)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약동학 등을 평가하고, 2상은 환자(보통 200명 미만)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치료효과를 탐색하며, 3상은 많은 환자(수천 명에서 수만 명)들에게 의약품을 투여하여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입증한다. 8.27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은 15건이 진행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33) 혈장치료제의 원료물질인 혈장이 인체에서 유래하고 중화항체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제품이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어 GC5131의 임상 1상 시험을 면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지표로 보는 충북 경제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제조업 생산 <sup>1)</sup>	2.1	1.4	5.1	3.7	0.2	-3.1	-4.1	-13.1 <sup>P</sup>	-6.0 <sup>P</sup>	..
서비스업 생산 <sup>2)</sup>	2.5	0.6	1.6	0.7	-0.4	0.3	-2.6	-3.3 <sup>P</sup>	-	-
비제조업 매출BSI <sup>3)</sup>	70	65	64	66	63	68	58	50	53	52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1.3	-2.3	-1.1	-2.4	-4.5	-1.7	-4.0	7.3 <sup>P</sup>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sup>2)</sup>	-1.8	-3.3	0.3	-4.9	-5.6	-3.4	-9.9	-5.3 <sup>P</sup>	-6.7 <sup>P</su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sup>3)</sup>	97	89	92	91	88	86	88	80	85	82
건설업 업황BSI <sup>3)</sup>	61	59	57	61	56	62	59	48	44	50
수 출 <sup>4)</sup>	16.2	-5.0	-6.8	-1.8	-5.1	-6.1	10.9	-1.0	6.5	7.9
취업자수 증가 <sup>5)6)</sup>	1.6	0.4	1.7	-0.6	-0.1	0.4	2.0	1.2	1.6	0.1
(비농림어업)	(1.5)	(0.5)	(1.6)	(-0.2)	(-0.0)	(0.8)	(0.7)	(0.7)	(1.3)	(0.0)
고 용 률 <sup>6)</sup>	63.3	62.9	61.8	63.0	63.8	63.7	61.8	64.1	64.5	63.7
소비자물가	1.6	0.4	0.5	0.6	0.0	0.3	1.3	-0.1	0.4	0.8
주택매매가격 <sup>7)</sup>	-2.5	-3.1	-0.8	-1.1	-0.9	-0.3	0.2	1.8	0.5	0.1
주택전세가격 <sup>7)</sup>	-2.7	-3.3	-1.1	-1.2	-0.8	-0.3	0.2	0.7	0.3	0.3
기업자금사정BSI <sup>3)</sup>	80	74	72	75	74	77	71	63	71	70

주 : 1) 원계열(2015=100) 기준 2) 불변지수(2015=100) 기준 3)지수(기준치=100) 4)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7) 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8) P는 잠정치

**발행** 한국은행 충북본부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 **홈페이지** www.bok.or.kr → 지역본부 → 충북본부  
**문의** 043-220-0594(제조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0593(서비스업 생산, 소비, 현장리포트), 0597(건설투자, 고용,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기업자금사정)